

## 영원한 추억의 열차 수인선(水仁線)

수인선은 수원과 인천 사이를 왕복하던 '꼬마열차', '동차' 등의 애칭을 가진 협궤열차입니다.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부설한 사설철도로 1937년 7월 19일 개통되어 1995년 12월 31일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총연장 52.8km로 수원역과 인천 수인역 사이를 운행하는데 1시간 40분 정도가 걸렸고, 개통 당시에는 17개의 역(수원, 고색, 오목, 어천, 야목, 빈정, 일리, 성두, 원곡, 신길, 군자, 소래, 논현, 남동, 문학, 송도, 인천항(수인역))이 있었습니다.

수인선은 군자와 소래 등지에서 생산된 소금과 게, 조개 등 각종 해산물을 비롯하여 농산물을 실어 날랐으며, 주로 학생들의 통학용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수인선 세류 공원 인근에는 수인선과 수여선이 교차하고 또 열차들의 시운전 및 회차용 철도가 놓여 있어 이 일대를 '세류삼각선'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수인선은 아직까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서민들의 애환과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추억의 열차로 남아 있습니다.

※ 협궤열차 : 국제 표준궤인 1435mm의 일반열차에 비해 레일의 간격이 762mm로 좁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국내의 협궤열차는 1931년 개통된 수여선(수원-여주)과 1937년 개통한 수인선(수원-인천)이 있다.



※ 사진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제공

Suin Line, well-known for its so-called "Kid Train" or "Baby Train," is a narrow-gauge railroad between Suwon and Incheon. It was constructed as a private railroad in July 19, 1937 by Chosun Kyungdong Railroad Corporation, and faded into history with the last trip in December 31, 1995. It took one hour and forty minutes to travel a total range of 52.8 kilometers. At the time of its opening, there existed seventeen stations: Suwon, Gosaek, Omok, Eocheon, Yamok, Binjeong, Ilri, Seongdo, Wongok, Singil, Gunja, Sorae, Nonhyeon, Namdong, Munhak, Songdo, and Incheon harbor.

Suin Line was mainly used to transport marine products such as salts, crabs, and clams from Gunja and Sorae, as well as agricultural products, and also used for students to commute to school. Seryu Memorial Park is near the area where Suin and Suyeo Lines intersected and extra railroads were installed for turnaround and testing. This is why the area was called "Seryu Triangular Line."

Suin Line has remained alive in people's heart as a memorable railway embracing joys and sorrows of their lives.

※ A Suin Narrow-Gauge Train : The title was given because it had a track gauge of 762 millimeters narrower than the standard 1435. We had two narrow-gauge trains in Korea: Suyeo and Suin Lines, respectively opened in 1931 and in 1937.

## | 오시는 길 |



## 수인선 세류 공원

■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31번길 6 (세류동)

■ 대중교통 이용안내

### • 수원역

수원역 6번출구 : 일반시내버스 1, 5, 5-1, 7, 7-1, 7-2, 13-5, 24, 88, 88-1, 301, 303, 310, 311번 탑승 → 아세아시멘트 정류장 하차

### • 세류역

세류역 1번출구 : 일반시내버스 24, 301, 311번 탑승 → 아세아시멘트 정류장 하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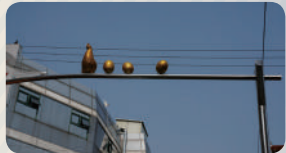
## 수원유람 사업 소개 Introduction to "Suwon Sightseeing" Project

(재)수원문화재단의 '수원유람(水原遊覽)' 사업은 '문화도시 수원을 유람하자'는 취지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 내 산재해 있는 역사, 문화, 예술 등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여 문화도시 수원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원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팔달구 팔부자문구거리에 <수원유람 팔부자거리>로 총 31점의 벽화와 부조작품을, 2013년에는 팔달구 통닭거리에 <수원유람 통닭거리 \_ 사통팔달 문화장터>로 황금알을 낳는 금닭, 새상만사 갤러리 등 4점을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현재는 사라졌지만, 과거 수원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던 수인선 협궤열차를 주제로 수인선 철로를 따라 만들어진 수인선 세류 공원에 설치하였습니다.

### 2013 수원유람 통닭거리 사통팔달 문화장터



황금 알을 낳는 금닭



새상만사 갤러리

### 2012 수원유람 팔부자거리



호호부실 인인화락



정조 능행차

Suwon Cultural Foundation(SWCF) has conducted the project of "Suwon Sightseeing" since 2012 to the effect of encouraging people to "go sightseeing throughout Suwon, the cultural city." The project is an effort to develop storytelling of historic,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s scattered around Suwon, and to transform them into resources to build up the image of Suwon as cultural city.

For this purpose, in 2012, SWCF conducted the program titled "Suwon Sightseeing the Eight Rich Street," displaying a total of 31 wall paintings and reliefs in the the Eight Rich Street, Paldal District, and, in 2013, the program "Whole Roast Chicken Street for Suwon Sightseeing: Cultural Marketplace Running in All Directions," displaying "Golden Chicken Laying Golden Eggs," "Gallery : All Things in the World" and two others in the Whole Roast Chicken Street, Paldal District.

In 2014, this project continued in Suin Seryu Memorial Park, and its main theme was about a narrow-gauge train of Suin Line, which, however not present now, still feels like part of life to residents in Suwon.

## 수원유람 수인선공원

<흩어지다>, <흩어지다2>는 연작 형식의 작품으로, 협궤열차 수인선의 외형과 내부를 복원했으며 그 일부가 공원에 녹아 흩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자는 과거에 흩어져 있는 기억이 모여 새롭게 구현된 협궤열차의 모습 또는 기억 속의 협궤열차가 현재의 공원에 녹아드는 모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열차에 대한 추억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에게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지를 가능하게 하며, 내부를 거닐면서 역사 속의 협궤열차 크기를 가능하고 공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품 <흩어지다2>는 열차를 타고 다녔던 우리의 할머니의 모습을 재현하여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작품 2점은 모두 단일 재료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공원 내의 자연환경과 다른 시설물을 반사시킴과 동시에 동시에 강한 대비를 이루는 역할을 하며, 비물질성과 비현실성으로 시각적 환기를 일으킵니다. 공중으로 분산되는 초현실적인 형태는 수인선 세류 공원에 시각적 경쾌함과 기발함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 수원유람 작품

### "Suwon Sightseeing" in Suin Seryu Memorial Park

Located in Su-in Seryu Memorial Park, <Dispersion 1> and <Dispersion 2> are designed for restoring part of narrow-gauge train at one end and being melt into their surroundings at the other. Visitors can experience restored train from dispersed memories as well as the train in the memories melting into the park.

This gives people new perception in space and time, who have its memory or not. The can guess the physical train size in history and experience its impressive narrowness by walking through it. Particularly sitting old woman's figure brings up the past atmosphere.

Whole parts are made of one material -stainless steel, which makes strong contrast to nature in park with reflection. Demateriality and surreality from stainless steel will provide visual refreshment. By its surreal dispersing figure in the air, they also provides visual rhythm and whimsy to surroundings.

### Public Art Project for "Suwon Sightseeing"



### 2014 수원유람 수인선공원

- 흩어지다 1 2000 x 7196 x 2500 / 스테인리스 스틸
- 흩어지다 2 1950 x 3770 x 1800 / 스테인리스 스틸

- 작품 디자인 : 이용주 작가 (2014 수원유람 수인선공원 작품디자인 공모전 수상자)
- 작품 제작·설치 : (주)선진플러스

### Public Art Project for "Suwon Sightseeing" in Suin Seryu Memorial Park in 2014

- Dispersion 1 2000 x 7196 x 2500 / Stainless Steel
- Dispersion 2 1950 x 3770 x 1800 / Stainless Steel

- Designed by : Yong Ju, Lee, the winner of 2014 Public Art Project Design Contest for Suwon Sight Seeing.
- Produced and Installed by : Sunjin Communication